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취재 정보 자료

1. 선수 프로필

	종 목	사격	세부 종목	10M 공기권총		
	성 명	추가은 (영문 : CHOO GA EUN) (한문: 秋佳閏)				
	소 속	임실군청				
	출생년도	2001	성별	여		
	출생사도	경상남도 통영시				
	학력	중학교		창원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2. 국제대회 참가성적 및 세계랭킹

국제대회 참가성적 (2022-2026년)	• 2026 뮌헨 월드컵 동메달
세계랭킹(제출일 기준)	• 23위

3. 스토리텔링 자료

1.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목표와 출전 각오는 무엇인가요?
큰 목표는 메달 획득이고, 작은 목표는 결선 진출이 목표입니다. 결선 진출 전에 본선에서 제가 원하는 대회 운영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임할 것입니다.
2. 해당 종목의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시작 연령은?
초등학생 때는 육상부로 활동 했었는데 중학교 진학 후 체육시간에 사격부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저를 추천 하여 호기심에 테스트를 받았고 그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세 (중학교 1학년)에 시작 했습니다.
3. 경기 전 나만의 루틴 또는 징크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기 시작 몇 주 정도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경기 전 날 저녁, 당일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잘 붓는 체질이라 다음 날 손잡이를 잡을 때 지장이 가는 경우가 많고 경기 당일에는 배부름에서 오는 불편감이 있어 생긴 루틴입니다.
4. 선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에 경기가 있었고, 금메달을 땀는데 저녁 늦게 학교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와 주셨습니다. 그때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어버이날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나눈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선발전들에서 부진한 성적을 얻고 난 뒤에 시작한 시즌에서도 연장선으로 저조한 성적이 나왔을 때 힘들었습니다. 사격에 대한 흥미도, 의욕도 떨어져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하던 때였는데 제 주변 코치님들께서 너무 생각이 많다며 생각을 비우고 다시 시작해 보자 등의 말씀과 함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부정적이었던 생각들과 시선,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6. 선수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가족, 지도자, 멘토 등)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고 지쳐있을 때 항상 저의 편에서 지지해 주셔서 든든한 버팀목에서 잠시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7. 운동 외에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운동 시간 외에는 휴식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8.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부상 극복, 학업·직장 병행, 가족 이야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결선 신기록을 쓰고 금메달을 땀는데 당시 고등학교 코치님께서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내려하는 걸 참고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 해맑고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눈물이 쏙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9.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세월이 흘러도 사격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선수들도 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0. 나만의 좌우명 또는 철학이 있나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라는 명언을 철학이라 하기엔 거창하지만 철학이라 여깁니다.
11.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지인이 있나요?
제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12.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작성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